

# 학교 독서 문화의 진단과 이해\*

김명순\*\*

## <차 례>

- I. 서론
- II.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 III. 학교 현장의 독서 인식 양상
- IV. 학교 현장의 독서 실천 양상
- V. 논의 및 결론

## I. 서론

문화에 대한 정의 중 가장 보편화된 타일러(E. B. Tylor)의 정의에 의하면, 문화란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 관습 등의 추상적 체계 외에 인간이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획득한 어떤 다른 능력과 습관을 포함하는 복합 총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 이 정의는 인간이 후천적으로 사회의 영향을 입어 지니게 되는 인식적 측면과 실천상의 행태적 측면까지 아우르는 점에서 키싱(F. M. Kessing)이 말하는 문화란 학습되고 사회적으로 전승된 행위의 총체라는 정의와 상통하는 바가 있다.

문화는 교육의 결과이면서 교육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는 학교 사회의 성원이 지닌 문화가 반영되어 있게 마련이다.

\* 이 논문은 2007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교수

학교 독서 교육에는 학교 독서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학교 사회의 성원으로서 독서에 대해 획득한 인식이나 실천 행태가 학교 독서 교육에 담겨 있는 한편으로 이것들이 학교 독서 교육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학교 독서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학교 독서 교육을 논의하는 것은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학교 독서 문화의 진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II.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학교 독서 문화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학교 사회의 성원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당연하다. 학교 사회의 성원에는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행정가 등 여러 집단이 포함되지만 가장 중요한 일차 집단은 학생과 교사 집단이다. 학교 독서 문화를 포괄적으로 진단하고자 한다면 이들 모든 집단이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연구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일차 집단인 학생과 교사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학교 독서 문화의 진단은 여러 방향에서 접근 가능하다. 어떤 독서 현상이 지닌 구체적 의미를 드러내는 쪽으로 접근하고자 한다면 그 의미가 생성되는 개별 맥락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때는 개별 독서 사례의 총체적 관찰이 필요하다. 독서 현상의 일반적 양상을 밝히는 방향으로 접근하고자 한다면 개별 사례의 관찰이 아니라 다수 사례를 통한 공통된 특질의 수집이 필요하다. 본고는 후자의 방향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다수 사례의 수집에 효율적인 설문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 조사는 2008년 7월 8일에서 7월 18일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참여 학생은 부산시 소재 중학교와 고등학교 12개교<sup>3)</sup> 1,355명이다. 참여 학

3) 동래중학교, 성동중학교, 부산진여자중학교, 유락여자중학교, 주감중학교, 신덕중학교, 대연고등학교, 개금고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영도여자고등학교, 남산고등학교, 부경고등학교.

교 선정은 무선적으로 하되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각 남학교 2곳, 여학교 2곳, 남녀공학 2곳으로 안배하였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다. 학교 당 표집 규모는 3~4개 학급이 되도록 하였다. 참여 교사는 국어과와 비국어과 모두로 하였으며, 학기말의 분주한 상황을 고려하여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참여를 요청하였다. 표집 규모를 놓고 학교 당 특정 수를 제시하거나 제한하지 않았으며, 응답지 회수도 자발적 의사에 따랐다. 참여 교사는 학생을 표집한 12개교 중 8개교를 포함하여 모두 15개교<sup>4)</sup> 330명이다.

<표 1> 설문 참여자 현황

		중	고	전체
학생	남	327(53.3)	388(52.3)	715(52.8)
	여	286(46.7)	354(47.7)	640(47.2)
	계	613(100)	742(100)	1355(100)
교사	국어과	43(28.1)	49(27.7)	92(27.9)
	비국어과	110(71.9)	128(72.3)	238(72.1)
	계	153(100)	177(100)	330(100)

N(%)

응답지 회수 후 성실하지 못한 응답지는 집계에서 제외하였다. 전체적으로 성실히 하였지만 한두 문항이 응답에서 누락된 사례가 극소수 있었다. 이 경우는 집계에 포함하되 해당 문항만 결측으로 처리하였다. 통계 처리는 한글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표집된 반응의 집단별 차이가 실제적 차이인지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생들 반응은 학교급별(중/고), 성별(남/여) 차이를 살폈으며, 교사들 반응은 학교급별(중/고), 교과별(국어과/비국어과) 차이를 살펴보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수학습자별(학생/교사) 반응 차이도 고찰하였다.

4) 동래중학교, 연산중학교, 부산진여자중학교, 유락여자중학교, 석포여자중학교, 주감중학교, 신덕중학교, 기장중학교, 대연고등학교, 장안고등학교, 사직여자고등학교, 남산고등학교, 부경고등학교, 부흥고등학교,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 Ⅲ. 학교 현장의 독서 인식 양상

학교 현장의 독서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살피기 위해 독서 개념, 독서의 중요성, 독서의 필요성 세 가지로 나누어 설문하였다.

#### 1. 독서 개념 인식

학생과 교사들이 독서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 중 ‘독서’를 가장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는 말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① 책을 읽는 것, ② 책을 읽으며 쉬는 것, ③ 책을 읽고 교양을 쌓는 것, ④ 책을 읽고 정보나 지식을 얻는 것, ⑤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만드는 것, ⑥ 기타의 6가지 반응지에 답하게 하였다. 반응지①은 독서를 자구적으로 이해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②는 독서를 여가를 즐기는 하나로 인식하는 경우와 관련된다. ③은 독서를 실용성과 다소 거리를 두고 전인적 측면에서 인식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④는 독서를 삶의 세계와 관련지어 인식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⑤는 독서가 본질적으로 고등 사고 작용과 관련된 의미 구성 행위임을 인식하는 경우와 관련된다. 다음 <표 2>에서 <표 6>까지는 이 질문에 대한 반응을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표 2> 독서 개념에 대한 학생의 학교급별 차이 교차분석 결과

질 문	반 응	학교급별		전 체	$\chi^2=58.361$ $df=6$ $p=.000$
		중학교	고등학교		
‘독서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은?’	① 책 읽는 것	67(10.9)	48(6.5)	115(8.5)	
	② 읽으며 쉬는 것	32(5.2)	61(8.2)	93(6.9)	
	③ 교양 쌓는 것	85(13.9)	75(10.1)	160(11.8)	
	④ 정보 지식 얻는 것	306(49.9)	286(38.5)	592(43.7)	
	⑤ 생각을 만드는 것	112(18.3)	245(33.0)	357(26.3)	
	⑥ 기타	11(1.8)	26(3.5)	37(2.7)	
	결측	1(0.1)	0(0.0)	1(0.1)	
계		613(100)	742(100)	1,355(100)	

N(%)

<표 2>와 <표 3>을 보면 주어진 질문에 대해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책을 읽고 정보나 지식을 얻는 것”에 43.7%로 가장 많이 반응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이 반응한 경우는 전체 학생의 26.3%가 응답한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만드는 것”이다. 독서를 교양을 기르거나 여가를 즐기는 차원으로 생각한 경우는 각각 11.8%, 6.9%로 반응률이 낮은 편이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은 독서를 정보나 지식을 얻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우세하다. 직접적 효용성이 떨어지는 교양이나 여가의 측면에서 인식하는 경향은 낮다.

<표 2>에서 학교급별 반응 양상을 보면 중학교 학생이 49.9%, 고등학교 학생이 38.5%로 “책을 읽고 정보나 지식을 얻는 것”에 가장 많이 반응하였다. 이 문항의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는 Pearson의 카이제곱 값이 58.361이고 유의확률 p값이 .000이어서 유의수준  $\alpha=.05$ 보다 작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학교급별 차이가 유의미하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독서를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우세하지만, 중학생이 49.9%, 고등학생이 38.5%를 보여 이런 인식이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에게서 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만드는 것”에 반응한 경우는 중학생이 18.3%, 고등학생이 33.0%로 나타나서 중학생에 비해서 고등학생이 의미 구성 행위로서 독서를 개념화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 독서 개념에 대한 학생의 성별 차이 교차분석 결과

질 문	반 응	성 별		전 체	$\chi^2=15.333$ $df=6$ $p=.018$
		남	여		
‘독서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은?’	① 책 읽는 것	68(9.5)	47(7.3)	115(8.5)	
	② 읽으며 쉬는 것	54(7.6)	39(6.1)	93(6.9)	
	③ 교양 쌓는 것	80(11.2)	80(12.5)	160(11.8)	
	④ 정보 지식 얻는 것	313(43.8)	279(43.6)	592(43.7)	
	⑤ 생각을 만드는 것	172(24.1)	185(28.9)	357(26.3)	
	⑥ 기타	28(3.9)	9(1.4)	37(2.7)	
	결측	0(0.0)	1(0.2)	1(0.1)	
계		715(100)	640(100)	1,355(100)	

N(%)

<표 3>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학생이 43.8%, 여학생이 43.6%로 “책을 읽고 정보나 지식을 얻는 것”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다. 남학생이나 여학생 모두 독서를 정보나 지식을 얻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이 질문에 대한 성별 차이는 Pearson의 카이제곱 값이 15.333 이고 유의확률 p값이 .018이어서 유의수준  $\alpha=.05$ 보다 작다. 따라서 영가설을 기각하고 이 질문에 대한 성별 차이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만드는 것”에 대한 반응은 남학생이 24.1%, 여학생이 28.9%로 나타나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이로써 독서를 의미 구성 행위로 개념화하는 경향은 여학생이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음 <표 4>, <표 5>는 동일한 질문에 대해 교사들이 응답한 결과이다.

<표 4> 독서 개념에 대한 교사의 학교급별 차이 교차분석 결과

질문	반응	학교급별		전체	$\chi^2=7.430$ $df=5$ $p=.191$
		중학교	고등학교		
‘독서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은?’	① 책 읽는 것	10(6.5)	10(5.6)	20(6.1)	
	② 읽으며 쉬는 것	12(7.8)	4(2.3)	16(4.8)	
	③ 교양 쌓는 것	11(7.2)	21(11.9)	32(9.7)	
	④ 정보 지식 얻는 것	25(16.3)	33(18.6)	58(17.6)	
	⑤ 생각을 만드는 것	91(59.5)	106(59.9)	197(59.7)	
	⑥ 기타	4(2.6)	3(1.7)	7(2.1)	
	계	153(100)	177(100)	330(100)	

N(%)

<표 4>와 <표 5>를 보면, 주어진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이 반응한 경우는 전체 교사의 59.7%가 응답한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반응한 경우는 17.6%를 보인 “책을 읽고 정보나 지식을 얻는 것”이지만, 가장 높은 경우와의 반응을 차이가 상당히 나는 편이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교사들은 전체적으로 독서를 생각을 만드는 행위로 여기는 경향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에서 학교급별 반응 양상을 살펴보면, 중학교 교사들이 59.5%,

고등학교 교사들이 59.9%로 독서란 자신의 생각을 만드는 것이라는 데 가장 높게 반응하였다. 이 질문의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가 Pearson의 카이제곱 값이 7.430이고 유의확률이 .191이므로 유의수준  $\alpha=.05$ 보다 커서 영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따라서 독서 개념에 대해 교사들의 학교급에 따른 반응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중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 사이에 독서 개념에 대한 인식상의 차이는 없다.

<표 5> 독서 개념에 대한 교사의 교과별 차이 교차분석 결과

질 문	반 응	교과별		전 체	$\chi^2=12.517$ $df=5$ $p=.028$
		국어과	비국어과		
‘독서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은?’	① 책 읽는 것	8(8.7)	12(5.0)	20(6.1)	
	② 읽으며 쉬는 것	5(5.4)	11(4.6)	16(4.8)	
	③ 교양 쌓는 것	6(6.5)	26(10.9)	32(9.7)	
	④ 정보 지식 얻는 것	7(7.6)	51(21.4)	58(17.6)	
	⑤ 생각을 만드는 것	63(68.5)	134(56.3)	197(59.7)	
	⑥ 기타	3(3.3)	4(1.7)	7(2.1)	
	계	92(100)	238(100)	330(100)	

N(%)

<표 5>는 주어진 질문에 대한 교사들의 교과별 반응 양상을 보여준다. 국어과 교사들은 68.5%, 비국어과 교사들은 56.3%로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만드는 것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높게 반응한 경우는 지식을 얻는 것이었는데 국어과 교사는 7.6%, 비국어과 교사는 21.4%로 나타났다. 이 경우의 반응률을 비교해 보면 국어과 교사에 비해 비국어과 교사의 반응률이 약 3배 정도 높은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이 문항의 교과별 교차분석 결과, Pearson의 카이제곱 값이 12.517이고 유의확률 p값이 .028이므로 유의수준  $\alpha=.05$ 보다 작다. 따라서 교사들의 독서 개념에 대해 교과별 반응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 즉,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교과를 막론하고 독서를 자기 생각을 만드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지만, 이러한 인식을 비국어과 교사에 비해 국어과 교

사들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체적인 반응률은 낮았지만, 독서를 정보나 지식을 얻는 것으로 인식하는 성향은, 국어과 교사에 비해 비국어과 교사들이 훨씬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표 6> 독서 개념에 대한 교수학습자별 차이 교차분석 결과

질 문	반 응	교수학습자별		전 체	$X^2=141.959$ $df=6$ $p=.000$
		학생	교사		
'독서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은?	① 책 읽는 것	115(8.5)	20(6.1)	135(8.0)	
	② 읽으며 쉬는 것	93(6.9)	16(4.8)	109(6.5)	
	③ 교양 쌓는 것	160(11.8)	32(9.7)	192(11.4)	
	④ 정보 지식 얻는 것	532(43.7)	58(17.6)	650(38.6)	
	⑤ 생각을 만드는 것	357(26.3)	197(59.7)	554(32.9)	
	⑥ 기타	37(2.7)	7(2.1)	44(2.6)	
	결측	1(0.1)	0(0.0)	1(0.1)	
계		1,355(100)	330(100)	1,685(100)	

N(%)

<표 6>은 같은 질문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반응 차이를 보여준다. 학생들은 정보나 지식을 얻는 것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43.7%), 교사들은 자신의 생각을 만드는 것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59.7%). 학생들은 주로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것이 독서라는 인식을 하는 반면에, 교사들은 주로 생각을 만드는 것이 독서라는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독서를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것으로 반응한 경우는 학생이 43.7%, 교사가 17.6%로 나타나 상당한 차이가 있고, 자신의 생각을 만드는 것으로 반응한 경우는 학생이 26.3%, 교사가 59.7%로 나타나 역으로 상당한 차이가 벌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질문의 교수학습자별 교차분석 결과는 Pearson의 카이제곱 값이 141.959이고 유의확률 p 값이 .000이므로 유의수준  $\alpha=.05$ 보다 작아서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즉 독서 개념에 대해 학생과 교사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로써 독서를 지식이나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은 교사에 비해 학생에게서 현저하며, 반대로 자신의 생각을 만드는 과정으로 여기는



경향은 학생들에 비해 교사에게서 현저하다고 할 수 있다.

## 2. 독서의 중요성 인식

학생들과 교사들이 독서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했다. 그리고 ① 사실 중요하지 않음, ②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 않음, ③ 조금 중요한 것 같음, ④ 매우 중요한 것 같음, ⑤ 기타의 5개 반응지를 주고 하나를 고르게 하였다. 다음 <표 7>에서 <표 11>까지는 이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교차분석한 것이다.

<표 7>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학생의 학교급별 차이 교차분석 결과

질 문	반 응	학교급별		전 체	$\chi^2=4.095$ $df=4$ $p=.393$
		중학교	고등학교		
독서의 중요성은?	① 중요하지 않음	21(3.4)	14(1.9)	35(2.6)	
	② 그다지 중요 않음	51(8.3)	53(7.1)	104(7.7)	
	③ 조금 중요함	348(56.8)	431(58.1)	779(57.5)	
	④ 매우 중요함	183(29.9)	233(31.4)	416(30.7)	
	⑤ 기타	10(1.6)	11(1.5)	21(1.5)	
	계	613(100)	742(100)	1,355(100)	

N(%)

<표 7>과 <표 8>을 보면, 전체 학생은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③조금 중요한 것 같음”에 57.5%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은 30.7%의 학생이 “④매우 중요한 것 같음”에 응답하였다. 이 두 경우를 합하면 88.2%라는 절대 다수의 학생이 독서의 중요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하다는 경우보다 조금 중요한 것 같다는 경우에 더 많이 응답함으로써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독서의 중요성을 단순히 긍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지닌 경우라 할 수 있는 “① 사실 중요하지 않음”에

반응한 경우(2.6%)와 “②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 않음”에 반응한 경우(7.7%)를 합하면 전체적으로 10.3%의 학생들이 독서의 중요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독서의 중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88.2%)에 비하면, 이들이 비교할 수 없이 적은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수치를 절대적으로 놓고 본다면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렵다. 전체 학생의 10분의 1정도가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독서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학습 부진까지 고려하면 문제 현상임에 틀림없다.

<표 7>에서 학교급별 반응의 차이를 살펴보면 중학교 학생은 56.8%, 고등학교 학생은 58.1%가 독서의 중요성을 조금 중요한 것으로 가장 높게 답변하였다. 이 문항의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가 Pearson의 카이제곱 값이 4.095이고 유의확률 p값이 .393이어서 유의수준  $\alpha=.05$ 보다 크다. 따라서 학생들의 독서의 중요성 판단에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없다. 독서가 조금 중요한 것 같다는 판단에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가 없으며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표 8>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학생의 성별 차이 교차분석 결과

질 문	반 응	성 별		전 체	$\chi^2=2.043$ $df=4$ $p=.728$
		남	여		
독서의 중요성은?	① 중요하지 않음	20(2.8)	15(2.3)	35(2.6)	
	② 그다지 중요 않음	50(8.3)	45(7.0)	104(7.7)	
	③ 조금 중요함	410(57.3)	369(57.7)	779(57.5)	
	④ 매우 중요함	213(29.8)	203(31.7)	416(30.7)	
	⑤ 기타	13(1.8)	8(1.3)	21(1.5)	
	계	715(100)	640(100)	1,355(100)	

N(%)

<표 8>은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학생들이 성별로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보여준다. 남학생의 57.3%, 여학생의 57.7%가 “③조금 중요한 것 같음”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이 문항의 성별 교차분석 결과가 Pearson의 카이제곱 값이 2.043이고 유의확률이 .728이므로 유의수준  $\alpha=.05$ 보다 크다. 따라서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반응 사이에 유

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독서가 조금 중요한 것 같다는 판단에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없고, 독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도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없다.

다음 <표 9>, <표 10>은 동일한 질문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 결과이다.

<표 9>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교사의 학교급별 차이 교차분석 결과

질 문	반 응	학교급별		전 체	$\chi^2=2.779$ $df=4$ $p=.596$
		중학교	고등학교		
독서의 중요성은?	① 중요하지 않음	0(0.0)	1(0.6)	1(0.3)	
	② 그다지 중요 않음	0(0.0)	2(1.1)	2(0.6)	
	③ 조금 중요함	14(9.2)	18(10.2)	32(9.7)	
	④ 매우 중요함	137(89.5)	153(86.4)	290(87.9)	
	⑤ 기타	2(1.3)	3(1.7)	5(1.5)	
	계	153(100)	177(100)	330(100)	

N(%)

<표 9>와 <표 10>을 보면, 주어진 질문에 대해 교사들은 전체적으로 87.9%의 압도적인 비율로 “④ 매우 중요한 것 같음”에 응답하였다. 이러한 반응은 독서의 중요성에 다소 소극적인 “③ 조금 중요한 것 같음”에 응답한 9.7%의 경우와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이다. 교사들은 전체적으로 독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큰 이견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9>에서 교사들의 학교급별 반응 양상을 살펴보면, 중학교 교사들이 89.5%, 고등학교 교사들이 86.4%로 독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 문항의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 Pearson의 카이제곱 값이 2.779이고 유의확률 p값이 .596이어서 유의수준  $\alpha=.05$ 보다 크다. 그러므로 영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즉,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학교급에 따른 교사들의 반응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중학교 교사의 판단과 고등학교 교사의 판단 사이에 차이가 없다.

&lt;표 10&gt;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교사의 교과별 차이 교차분석 결과

질 문	반 응	교과별		전 체	$\chi^2=8.956$ $df=4$ $p=.062$
		국어과	비국어과		
독서의 중요성은?	① 중요하지 않음	0(0.0)	1(0.4)	1(0.3)	
	② 그다지 중요 않음	1(1.1)	1(0.4)	2(0.6)	
	③ 조금 중요함	6(6.5)	26(10.9)	32(9.7)	
	④ 매우 중요함	81(88.0)	209(87.8)	290(87.9)	
	⑤ 기타	4(4.3)	1(0.4)	5(1.5)	
	계	92(100)	238(100)	330(100)	

N(%)

<표 10>에서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교과별 응답 결과를 보면, 국어과 교사들은 88.0%, 비국어과 교사들은 87.8%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 문항의 교과별 교차분석 결과가 Pearson의 카이제곱 값이 8.956이고 유의확률 p값이 .062이어서 유의수준  $\alpha=.05$ 보다 크다. 즉, 교사들의 독서의 중요성 판단에 대하여 교과에 따른 반응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독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대하여 국어과 교사의 판단과 비국어과 교사의 판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lt;표 11&gt;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교수학습자별 차이 교차분석 결과

질 문	반 응	교수학습자별		전 체	$\chi^2=360.546$ $df=4$ $p=.000$
		학생	교사		
독서의 중요성은?	① 중요하지 않음	35(2.6)	1(0.3)	36(2.1)	
	② 그다지 중요 않음	104(7.7)	2(0.6)	106(6.3)	
	③ 조금 중요함	779(57.5)	32(9.7)	811(48.1)	
	④ 매우 중요함	416(30.7)	290(87.9)	706(41.9)	
	⑤ 기타	21(1.5)	5(1.5)	26(1.5)	
	계	1,355(100)	330(100)	1,685(100)	

N(%)

<표 11>은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반응을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학생들은 “③ 조금 중요한 것 같음”에 57.5%로 가장 높게 응답

하였고, 교사들은 “④ 매우 중요한 것 같음”에 87.9%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학생들은 독서의 중요성을 인정하되 그 정도를 그다지 높게 판단하지 않고, 교사들은 압도적으로 독서를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학생과 교사가 독서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지배적임은 공통되지만, 중요성에 대한 판단 수준에 상이함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서가 “조금 중요한 것 같음”에 응답한 학생은 57.5%, 교사는 9.7%로 나타났는데 그 차이가 매우 현격하다. 이와 달리 독서가 “매우 중요한 것 같음”에 반응한 경우는 학생이 30.7%, 교사가 87.9%로 나타나 반대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 문항의 교수학습자별 교차분석 결과는 Pearson의 카이제곱 값이 360.546이고 유의확률 p값이 .000이어서 유의수준  $\alpha=.05$ 보다 작다. 즉, 독서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데 학생과 교사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로써 독서의 중요성을 소극적으로 긍정하는 성향은 교사에 비해 학생이 월등히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독서의 중요성을 매우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성향은 교사가 현저하게 높다고 볼 수 있다.

### 3. 독서의 필요성 인식

독서가 필요한 이유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학생용 질문을 “사람들이 독서를 많이 권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라고 제시하였다. 교사용 질문은 표현을 약간 바꾸어 “학생들에게 독서를 권할 때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로 하였다. 그리고 ① 정보나 지식을 주기 때문에, ②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기 때문에, ③ 공부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④ 교양을 쌓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⑤ 인생의 교훈이나 지혜를 주기 때문에, ⑥ 기타의 6가지 반응지를 주고 하나를 고르게 하였다. 다음 <표 12>에서 <표 16>까지는 여기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lt;표 12&gt; 독서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의 학교급별 차이 교차분석 결과

질 문	반 응	학교급별		전 체	$\chi^2=8.773$ $df=5$ $p=.118$
		중학교	고등학교		
사람들이 독서를 권하는 이유는?	① 정보와 지식	149(24.3)	149(20.1)	298(22.0)	
	② 정서 안정	41(6.7)	47(6.3)	88(6.5)	
	③ 공부에 도움	118(19.2)	123(16.6)	241(17.8)	
	④ 교양 형성	78(12.7)	100(13.5)	178(13.1)	
	⑤ 교훈과 지혜	212(34.6)	294(39.6)	506(37.3)	
	⑥ 기타	15(2.4)	29(3.9)	44(3.2)	
계		613(100)	742(100)	1,355(100)	

N(%)

<표 12>와 <표 13>을 살펴보면, 전체 학생은 사람들이 독서를 권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인생의 교훈이나 지혜를 주기 때문에”에 37.3%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학생들은 대체로 독서가 필요한 객관적인 이유를 교훈적 측면에서 찾는 경향이 강하다.

<표 12>에서 학교급별 반응 양상을 살펴보면 중학교 학생은 34.6%, 고등학교 학생은 39.6%가 사람들이 독서를 권하는 이유로 인생의 교훈과 지혜를 주기 때문이라는 데 응답하였다. 이 문항의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가 Pearson의 카이제곱 값이 8.773이고 유의확률 p값이 .118이어서 유의 수준  $\alpha=.05$ 보다 크다. 따라서 독서를 권하는 이유에 대해 학교급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전체적으로 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객관적인 이유를 삶의 교훈적 측면에서 찾는 경향이 강한데, 여기에 중학생의 인식과 고등학생의 인식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lt;표 13&gt; 독서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의 성별 차이 교차분석 결과

질 문	반 응	성 별		전 체	$\chi^2=14.960$ $df=5$ $p=.011$
		남	여		
사람들이 독서를 권하는 이유는?	① 정보와 지식	174(24.3)	124(19.4)	298(22.0)	
	② 정서 안정	49(6.9)	39(6.1)	88(6.5)	
	③ 공부에 도움	124(17.3)	117(18.3)	241(17.8)	

질 문	반 응	성 별		전 체	$\chi^2=14.960$ $df=5$ $p=.011$
		남	여		
사람들이 독서를 권하는 이유는?	④ 교양 형성	106(14.8)	72(11.3)	178(13.1)	
	⑤ 교훈과 지혜	237(33.1)	269(42.0)	506(37.3)	
	⑥ 기타	25(3.5)	19(3.0)	44(3.2)	
계		715(100)	640(100)	1,355(100)	

N(%)

<표 13>은 독서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성별 반응 양상을 보여준다. 사람들이 독서를 권하는 이유로 남학생은 33.1%, 여학생은 42.0%가 인생의 교훈과 지혜를 준다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많이 반응한 것은 정보와 지식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남학생은 24.3%, 여학생은 19.4%였다. 이 문항에 대한 성별 교차분석 결과는 Pearson의 카이제곱 값이 14.960이고 유의확률 p값이 .011이어서 유의수준  $\alpha=.05$ 보다 작다. 따라서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즉 이 문항에 대한 성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존재한다. 이로써 남녀를 불문하고 전체적으로는 독서가 필요한 이유를 교훈적 측면에서 찾고 있는 경향이 강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이러한 경향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와 지식 때문에 독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은 반대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 <표 14>, <표 15>는 독서의 필요성 인식과 관련한 교사들의 반응 결과이다.

&lt;표 14&gt; 독서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의 학교급별 차이 교차분석 결과

질 문	반 응	학교급별		전 체	$\chi^2=12.483$ $df=5$ $p=.029$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독서를 권하는 이유는?	① 정보와 지식	4(2.6)	15(8.5)	19(5.8)	
	② 정서 안정	4(2.6)	9(5.1)	13(3.9)	
	③ 공부에 도움	9(5.9)	6(3.4)	15(4.5)	
	④ 교양 형성	10(6.5)	21(11.9)	31(9.4)	

질 문	반 응	학교급별		전 체	$\chi^2=12.493$ $df=5$ $p=.029$
		중학교	고등학교		
	⑤ 교훈과 지혜	117(76.5)	112(63.3)	229(69.4)	
	⑥ 기타	9(5.9)	14(7.9)	23(7.0)	
계		153(100)	177(100)	330(100)	

N(%)

<표 14>와 <표 15>를 보면, 학생들에게 독서를 권할 때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란 질문에 대해 교사들은 전체적으로 “인생의 교훈이나 지혜를 주기 때문에”에 69.4%로 상당히 높게 반응하였다. 교사들은 독서가 필요한 이유를 인생의 교훈적 측면에서 찾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표 14>에서 교사들의 학교급별 반응 양상을 살펴보면, 학생들에게 독서를 권하는 이유가 인생의 교훈이나 지혜를 주기 때문이라는 데에 중학교 교사들이 76.5%, 고등학교 교사들이 63.3%로 반응하였다. 이 문항의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 Pearson의 카이제곱 값이 12.493이고 유의확률이 .029이어서 유의수준  $\alpha=.05$ 보다 작다. 이것은 독서를 권하는 이유에 대해 학교급에 따른 교사들의 반응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인생의 교훈이나 지혜를 주는 측면에서 독서를 권하는 성향이 고등학교 교사들에 비해 중학교 교사들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lt;표 15&gt; 독서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의 교과별 차이 교차분석 결과

질 문	반 응	교과별		전 체	$\chi^2=5.968$ $df=5$ $p=.309$
		국어과	비국어과		
학생들에게 독서를 권하는 이유는?	① 정보와 지식	7(7.6)	12(5.0)	19(5.8)	
	② 정서 안정	2(2.2)	11(4.6)	13(3.9)	
	③ 공부에 도움	5(5.4)	10(4.2)	15(4.5)	
	④ 교양 형성	6(6.5)	25(10.5)	31(9.4)	
	⑤ 교훈과 지혜	62(67.4)	167(70.2)	229(69.4)	
	⑥ 기타	10(10.9)	13(5.5)	23(7.0)	
계		92(100)	238(100)	330(100)	

N(%)



<표 15>는 학생들에게 독서를 권하는 이유에 대해 교사들의 교과별 반응 양상을 보여준다. 국어과 교사는 67.4%, 비국어과 교사는 70.2%가 학생들에게 독서를 권하는 이유가 인생의 교훈이나 지혜를 주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문항의 교과별 교차분석 결과는 Pearson의 카이제곱 값이 5.968이고 유의확률 p값이 .309이어서 유의수준  $\alpha=.05$ 보다 크다. 즉, 학생들에게 독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교사들의 교과별 반응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인생의 교훈이나 지혜를 주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독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은 국어과 교사와 비국어과 교사 간에 차이가 없다.

<표 16> 독서의 필요성에 대한 교수학습자별 차이 교차분석 결과

질 문	반 응	교수학습자별		전 체	$\chi^2=145.430$ $df=5$ $p=.000$
		학생	교사		
학생들에게 독서를 권하는 이유는?	① 정보와 지식	298(22.0)	19(5.8)	317(18.8)	
	② 정서 안정	88(6.5)	13(3.9)	101(6.0)	
	③ 공부에 도움	241(17.8)	15(4.5)	256(15.2)	
	④ 교양 형성	178(13.1)	31(9.4)	209(12.4)	
	⑤ 교훈과 지혜	506(37.3)	229(69.4)	735(43.6)	
	⑥ 기타	44(3.2)	23(7.0)	67(4.0)	
계		1,355(100)	330(100)	1,685(100)	

N(%)

<표 16>은 독서를 권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학생의 반응과 교사의 반응을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표 16>을 살펴보면, 학생과 교사 모두 각각 37.3%, 69.4%로 인생의 교훈과 지혜를 주기 때문이라는 데 가장 높게 반응하였다. 이 질문의 교수학습자별 교차분석 결과는 Pearson의 카이제곱 값이 145.430이고 유의확률 p값이 .000이어서 유의수준  $\alpha=.05$ 보다 작다. 즉 독서를 권하는 이유에 대해서 학생과 교사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 학생과 교사 모두 전체적으로는 인생의 교훈이나 지혜를 주기 때문에 독서를 권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지만, 이러한 경향이 학생에 비해 교사가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정보

나 지식을 주기 때문이라는 반응에 대해서는 학생이 22.0%, 교사가 5.8%로 응답하였고, 공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반응에 대해서는 학생이 17.8%, 교사가 4.5%로 응답하였다는 점인데, 독서가 필요한 객관적인 이유를 정보나 지식의 습득과 관련짓거나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점과 관련짓는 경향은 학생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IV. 학교 현장의 독서 실천 양상

학교 독서가 실천되고 있는 모습을 살피기 위해 독서 시기, 도서 선택 및 추천, 독서 동기, 독서 장애 요인의 네 가지 측면으로 접근하였다.

##### 1. 독서 시기

학생들의 독서 시기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서를 하면 주로 언제합니까?”란 질문을 제시하였다. 반응지는 ① 평소 틈날 때마다, ② 주말이나 공휴일에, ③ 방학 때, ④ 아침 자습, 특별 활동, 재량 활동 등 학교 일과 시간에, ⑤ 수행 평가 등 숙제와 관계 있을 때, ⑥ 기타의 6가지로 하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교사 본인의 독서 시기는 본 연구에서 관심 밖의 사안이므로 이 질문은 학생에게만 제시하였다. 다음 <표 17>과 <표 18>은 독서 시기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결과이다.

&lt;표 17&gt; 독서 시기에 대한 학생의 학교급별 차이 교차분석 결과

질 문	반 응	학교급별		전 체	$\chi^2=36.933$ $df=8$ $p=.000$
		중학교	고등학교		
독서는 주로 언제?	① 평소 틈날 때	259(42.3)	284(38.3)	543(40.1)	
	② 주말이나 공휴일	77(12.6)	120(16.2)	197(14.5)	
	③ 방학 때	79(12.9)	64(8.6)	143(10.6)	
	④ 학교 일과 중	62(10.1)	71(9.6)	133(9.8)	
	⑤ 숙제할 때	67(10.9)	146(19.7)	213(15.7)	
	⑥ 기타	68(11.1)	53(7.1)	121(8.9)	
	결측	1(0.2)	4(0.5)	5(0.4)	
계		613(100)	742(100)	1,355(100)	

N(%)

<표 17>과 <표 18>을 살펴보면, 독서를 하면 주로 언제 합니까란 질문에 대해 전체 학생들은 “평소 틈날 때마다”에 40.1%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학생들은 독서를 주로 틈날 때마다 하는 경향이 우세하다. 대부분 학생들이 독서를 특정한 시간을 정하거나 특정 시기를 이용하여 집중해서 하기보다 불특정하게 임의로 독서에 임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대비하여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하거나 방학 때를 이용한다는 경우는 각각 14.5%, 10.6%의 낮은 반응률을 보여 주목된다.

<표 17>은 학생들의 독서 시기에 대한 학교급별 반응 차이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교차분석 결과, 이 문항에 대한 Pearson의 카이제곱 값이 36.933이고 유의확률 p값이 .000이어서 유의수준  $\alpha=.05$ 보다 작았다. 즉, 독서 시기에 대한 학교급에 따른 학생들의 반응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 <표 17>을 보면, 평소 틈날 때마다 독서한다는 반응이 중학생과 고등학생 각각 42.3%, 3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중학생의 반응률이 더 높다. 평소 틈나는 시간을 활용해 독서하는 성향이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전체적인 반응률은 높지 않지만 주로 숙제와 관련지어 독서를 한다는 반응이 중학교 10.9%, 고등학교 19.7%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런 경향이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

생에게서 많이 나타났다는 것인데, 중학생의 경우 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숙제와 관련이 없더라도 독서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나은 데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

<표 18> 독서 시기에 대한 학생의 성별 차이 교차분석 결과

질 문	반 응	성 별		전 체	$\chi^2=26.229$ $df=8$ $p=.001$
		남	여		
독서는 주로 언제?	① 평소 틈날 때	249(34.8)	294(45.9)	543(40.1)	
	② 주말이나 공휴일	128(17.9)	69(10.8)	197(14.5)	
	③ 방학 때	79(11.0)	64(10.0)	143(10.6)	
	④ 학교 일과 중	70(9.8)	63(9.8)	133(9.8)	
	⑤ 숙제할 때	113(15.8)	100(15.6)	213(15.7)	
	⑥ 기타	73(10.2)	48(7.5)	121(8.9)	
	결측	3(0.4)	2(0.3)	5(0.4)	
계		715(100)	640(100)	1,355(100)	

N(%)

<표 18>을 보면, 남학생은 34.8%, 여학생은 45.9%가 독서 시기로 “평소 틈날 때”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성별 차이는 Pearson의 카이제곱 값이 26.229이고 유의확률 p값이 .001이어서 유의수준  $\alpha=.05$ 보다 작다. 즉, 독서 시기에 대하여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반응에 차이가 있다.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인 평소 틈날 때 독서하는 경향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전체적인 반응은 높지 않았지만 주말이나 공휴일에 독서하는 경향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도서 선택 및 추천

학생들의 도서 선택 경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금까지 읽은 책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했다. 동일한 질문을 표

현을 약간 바꾸어 교사들에게도 제시했는데, 학생들의 도서 선택이 교사들의 도서 추천에 대비해서 어떤 경향을 띠는지 살피기 위함이다. “학생들에게 권한 책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는 교사용 질문이다. 반응지는 ① 과목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책, ②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 ③ 고전이나 명작이라고 하는 책, ④ 연애소설, 추리소설 등 일단 재미있는 책, ⑤ 기타의 5가지로 동일하게 하고 그중에서 하나를 고르게 하였다. 반응지①~⑤는 중첩되는 면이 있지만, 도서를 선택할 때 흔히 하는 현실적인 판단 기준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다음 <표 19>에서 <표 23>까지는 도서 선택과 관련한 응답 결과이다.

<표 19> 도서 선택에 대한 학생의 학교급별 차이 교차분석 결과

질 문	반 응	학교급별		전 체	$\chi^2=33.383$ $df=6$ $p=.000$
		중학교	고등학교		
주로 읽은 책은?	① 과목공부관련	46(7.5)	47(6.3)	93(6.9)	
	② 베스트셀러	147(24.0)	266(35.8)	413(30.5)	
	③ 고전이나 명작	95(15.5)	92(12.4)	187(13.8)	
	④ 소설 등 재미있는 책	231(37.7)	208(27.4)	434(32.0)	
	⑤ 기타	91(14.8)	133(17.9)	224(16.5)	
	결측	3(0.5)	1(0.1)	4(0.3)	
계		613(100)	742(100)	1,355(100)	

N(%)

<표 19>와 <표 20>을 같이 살펴보면, 지금까지 주로 읽은 책에 대해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연애 소설, 추리 소설 등 일단 재미있는 책”에 32.0%로 가장 높게 답변하였다. 근소한 차이지만 그 뒤를 이어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에 30.5%의 높은 반응을 보였다.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연애소설이나 추리소설 등의 재미가 쉽게 느껴지는 책이나 시중에서 인기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류를 즐겨 읽는다고 할 수 있다. “연애 소설, 추리 소설 등 일단 재미있는 책”과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이 내용상 상호 중첩되는 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종합적으로 흥미 본위와 인기 위주의 책을 선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두 반응지의 반응을

을 합하면 62.5%에 달하는 바, 대부분의 학생들이 흥미나 인기를 기준으로 하여 책을 선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고전이나 명작을 고르거나 과목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을 읽는다고 답한 경우는 각각 13.8%와 6.9%의 낮은 반응률을 나타내어 대조를 이룬다. 이들 경우는 흥미가 쉽게 느껴지기 어렵거나 덜하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두 경우의 낮은 반응률은 학생들이 흥미나 인기 중심의 도서 선택 경향이 강한 만큼 흥미가 바로 느껴지지 않거나 흥미가 떨어지는 책을 기피하는 경향 또한 강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표 19>는 학교급에 따른 학생들의 도서 선택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이 문항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를 볼 것 같으면, Pearson의 카이제곱 값이 33.383이고 유의확률 p값이 .000으로서 유의수준  $\alpha=.05$ 보다 작다. 즉 도서 선택에 대해서 학교급에 따른 학생들의 반응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로써 연애소설이나 추리소설류의 일단 재미있는 책을 고르거나 베스트셀러류의 인기있는 책을 고르는 경향이 전체적으로 지배적이지만, 전자의 경우는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이 더 강하고, 후자의 경우는 고등학생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0> 도서 선택에 대한 학생의 성별 차이 교차분석 결과

질 문	반 응	성 별		전 체	$\chi^2=23.169$ $df=6$ $p=.001$
		남	여		
주로 읽은 책은?	① 과목공부관련	64(9.0)	29(4.5)	93(6.9)	
	② 베스트셀러	221(30.9)	192(30.0)	413(30.5)	
	③ 고전이나 명작	114(15.9)	73(11.4)	187(13.8)	
	④ 소설 등 재미있는 책	204(28.5)	230(35.9)	434(32.0)	
	⑤ 기타	109(15.2)	115(18.0)	224(16.5)	
	결측	3(0.4)	1(0.2)	4(0.3)	
계		715(100)	640(100)	1,355(100)	

N(%)

<표 20>은 도서 선택에 대하여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준다. 남학생은 30.9%가 베스트셀러를 주로 읽는다고 하여 가장 높은 반응

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근소한 차이로 28.5%가 연애소설이나 추리소설 등의 일단 재미있는 책을 읽는다고 반응하였다. 여학생은 연애소설이나 추리소설 등의 일단 재미있는 책을 읽는다는 데 35.9%의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근소한 차이로 베스트셀러를 주로 읽는다는 응답이 30.0%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문항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가 Pearson의 카이제곱 값이 23.169이고 유의확률이 .001이어서 유의수준  $\alpha=.05$ 보다 작다. 즉 도서 선택에 대해서 성별에 따른 학생들의 반응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연애 소설이나 추리 소설 등 일단 재미가 쉽게 느껴지는 책을 고르는 성향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전이나 명작을 읽는다는 반응이 남학생은 15.9%, 여학생은 11.4%로 나타난 점을 주시해 보면, 비록 전체적으로 반응률이 낮기는 하지만 재미가 쉽게 느껴지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고전이나 명작을 고르는 성향은 반대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 <표 21>, <표 22>는 도서 추천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 결과이다.

<표 21> 도서 추천에 대한 교사의 학교급별 차이 교차분석 결과

질 문	반 응	학교급별		전 체	$\chi^2=1.278$ $df=4$ $p=.865$
		중학교	고등학교		
주로 권한 책은?	① 과목공부관련	9(5.9)	12(6.8)	21(6.4)	
	② 베스트셀러	6(3.9)	4(2.3)	10(3.0)	
	③ 고전이나 명작	69(45.1)	86(48.6)	155(47.0)	
	④ 소설 등 재미있는 책	56(36.6)	59(33.3)	115(34.8)	
	⑤ 기타	13(8.5)	16(9.0)	29(8.8)	
계		153(100)	177(100)	330(100)	

N(%)

<표 21>과 <표 22>를 함께 살펴보면, 학생들에게 주로 권한 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교사들은 전체적으로 “고전이나 명작이라고 하는 책”에 47.0%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연애소설, 추리소설 등 일단 재미있는 책”에 34.8%로 높게 반응하였다. 반응률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경우는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으로 3.0%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고전이나 명작을 추천하려는 의사가 가장 크고 베스트셀러를 추천하려는 의사는 거의 없다는 점을 알려준다. 베스트셀러에 대한 추천 의사가 거의 없다는 점은 고전이나 명작에 대한 추천 의사가 높은 점과 상통하는 바가 있다. 한편으로, 소설류를 중심으로 하여 일단 재미있는 책을 추천한다는 반응도 높게 나타나 눈길을 끄는데,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흥미를 적극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판단의 결과일 수 있다.

<표 21>은 교사들의 도서 추천에 대한 반응이 학교급별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준다. 중학교 교사는 45.1%, 고등학교 교사는 48.6%가 고전이나 명작을 추천한다고 반응하였고, 소설류의 일단 재미있는 책을 추천한다는 경우에는 중학교 교사의 36.6%, 고등학교 교사의 33.3%가 응답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학교급별 차이의 교차분석 결과를 보면, Pearson의 카이제곱 값이 1.278이고 유의확률 p값이 .865이어서 유의수준  $\alpha=.05$ 보다 크다. 따라서 영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즉, 도서 추천에 대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표 22> 도서 추천에 대한 교사의 교과별 차이 교차분석 결과

질 문	반 응	교과별		전 체	$\chi^2=3.317$ $df=4$ $p=.506$
		국어과	비국어과		
주로 권한 책은?	① 과목공부관련	8(8.7)	13(5.5)	21(6.4)	
	② 베스트셀러	1(1.1)	9(3.8)	10(3.0)	
	③ 고전이나 명작	40(43.5)	115(48.3)	155(47.0)	
	④ 소설 등 재미있는 책	34(37.0)	81(34.0)	115(34.8)	
	⑤ 기타	9(9.8)	20(8.4)	29(8.0)	
계		92(100)	238(100)	330(100)	

N(%)

<표 22>를 살펴보면, 고전이나 명작을 추천한다는 경우에 국어과 교사의 43.5%, 비국어과 교사의 48.3%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소설류를 중심으로 하여 일단 재미있는 책을 추천한다는 경우에는 국어과 교사의 37.0%, 비국어과 교사의 34.0%로 그 다음으로 높게 반응하였다. 이 질문



에 대한 교과별 교차분석 결과, Pearson의 카이제곱 값이 3.317이고, 유의 확률 p값이 .506이어서 유의수준  $\alpha=.05$ 보다 크다. 곧 도서 추천에 대해서 국어과 교사와 비국어과 교사의 반응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23> 도서 선택(추천)에 대한 교수학습자별 교차분석 결과

질 문	반 응	교수학습자별		전 체	$\chi^2=235.809$ $df=6$ $p=.000$
		학생	교사		
주로 읽은/ 권한 책은?	① 과목공부관련	93(6.9)	21(6.4)	114(6.8)	
	② 베스트셀러	413(30.5)	10(3.0)	423(25.1)	
	③ 고전이나 명작	187(13.8)	155(47.0)	342(20.3)	
	④ 소설 등 재미있는 책	434(32.0)	115(34.8)	549(32.6)	
	⑤ 기타	224(16.5)	29(8.8)	253(15.0)	
	결측	4(0.3)	0(0.0)	4(0.2)	
계		1,355(100)	330(100)	1,685(100)	

N(%)

<표 23>은 도서 선택과 관련한 학생과 교사의 반응 차이를 보여준다. 학생은 주로 소설 등의 재미있는 책이나(32.0%), 베스트셀러(30.5%)를 읽는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에 교사는 고전이나 명작을 권한다는 응답(47.0%)이 가장 많았으며, 소설 등의 재미있는 책을 권한다는 응답(34.8%)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특별히, 반응률에 있어 베스트셀러의 경우 학생은 30.5%, 교사는 3.0%로 큰 차이를 보이고, 고전이나 명작의 경우에는 학생은 13.8%, 교사는 47.0%로 반대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도서 선택 및 추천에 대한 교수학습자별 교차분석 결과, Pearson의 카이제곱 값이 235.809이고 유의확률이 .000이어서 유의수준  $\alpha=.05$ 보다 작다. 즉, 도서 선택 및 추천에 대하여 교수학습자별 반응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로써 베스트셀러를 선택하는 경향은 학생에게 강하게 드러나며, 고전이나 명작을 읽을거리로 보는 경향은 교사에게 현저하다고 할 수 있다.

## 3. 독서 동기

어떤 경우에 독서 동기가 생기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서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주로 언제입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반응지는 ①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을 때, ② 교과서만으로 공부 부족할 때, ③ 너무 아는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 ④ 교양이 풍부한 친구를 볼 때, ⑤ 유명한 사람들의 성공 비결이 독서라고 할 때, ⑥ 책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느낄 때, ⑦ 할 일이 별로 없을 때, ⑧ 기타의 8가지로 제시하고 하나를 고르게 하였다. 여기서 독서 동기는 학생의 동기를 말하며, 교사 본인의 독서 동기는 본 연구에서 의미가 없다. 이 질문은 학생에게만 제시하였다. 다음 <표 24>, <표 25>는 이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lt;표 24&gt; 독서 동기에 대한 학생의 학교급별 차이 교차분석 결과

질 문	반 응	학교급별		전 체	$\chi^2=55.768$ $df=7$ $p=.000$
		중학교	고등학교		
독서를 하겠다는 마음이 들 때는?	① 대입에 도움	33(5.4)	93(12.5)	126(9.3)	
	② 교과서 보충	20(3.3)	33(4.4)	53(3.9)	
	③ 무지 느껴질 때	125(20.4)	109(14.7)	234(17.3)	
	④ 교양 있는 친구	70(11.4)	91(12.3)	161(11.9)	
	⑤ 성공 비결 독서	88(14.4)	49(6.6)	137(10.1)	
	⑥ 책 이야기 흥미	187(30.5)	265(35.7)	452(33.4)	
	⑦ 할 일 없을 때	64(10.4)	54(7.3)	118(8.7)	
	⑧ 기타	26(4.2)	48(6.5)	74(5.5)	
계		613(100)	742(100)	1,355(100)	

N(%)

<표 24>와 <표 25>를 보면,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독서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로 “⑥ 책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느낄 때”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전체 학생의 33.4%가 이 경우에 응답하였다. “너무 아는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의 경우가 17.3%로 그 뒤를 이었다.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 먼저 책 내용을 파악하고 흥미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에 독서 동기가 가장 많이 생성되는 경향이 있다. 이 밖에 자신의 무지함이 자각될 때 독서 동기가 각성되는 경향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교과서만으로 공부가 부족할 때의 경우가 반응률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학습 목적으로는 독서 동기가 잘 유발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 원인이 흥미 요소가 적은 점과 관련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사람을 통해 책 내용을 듣고 흥미 요소를 예상할 수 있을 때 독서 동기가 높게 나타난 점과 상통하는 바가 있다. 그리고 할 일이 없을 때에 반응을 적게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할 일이 없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독서를 하고 싶은 마음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인데, 독서를 하지 않는 데에는 시간 부족과 같은 물리적 요인보다 심리적 요인이 더 결정적임을 시사한다.

<표 24>는 독서 동기가 생성되는 경우에 대해 학생들의 학교급별 반응 양상을 보여준다. 중학교 학생이 30.5%, 고등학교 학생이 35.7%로 책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느낄 때에 가장 높게 반응하였다. 그 다음으로 높게 반응한 너무 아는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 독서 동기가 생긴다는 경우는 중학교 학생이 20.4%, 고등학교 학생이 14.7%로 나타났다. 이 문항의 학교급별 교차분석 결과, Pearson의 카이제곱 값이 55.768이고 유의확률  $p$  값이 .000이어서 유의수준  $\alpha=.05$ 보다 작다. 즉, 독서 동기와 관련하여 학교급에 따라 학생들의 반응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독서 동기를 가장 많이 느끼는 경우는 다른 사람이 하는 책 이야기를 듣고 흥미가 있겠다는 판단이 생길 때인데, 이러한 성향이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경우에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무지에 대한 자각이 독서 동기를 유발하는 경향은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lt;표 25&gt; 독서 동기에 대한 학생의 성별 차이 교차분석 결과

질 문	반 응	성 별		전 체	$\chi^2=36.425$ $df=7$ $p=.000$
		남	여		
독서를 하겠다는 마음이 들 때는?	① 대입에 도움	82(11.5)	44(6.9)	126(9.3)	
	② 교과서 보충	24(3.4)	29(4.5)	53(3.9)	
	③ 무지 느껴질 때	114(15.9)	120(18.8)	234(17.3)	
	④ 교양 있는 친구	90(12.6)	71(11.1)	161(11.9)	
	⑤ 성공 비결 독서	81(11.3)	55(8.8)	137(10.1)	
	⑥ 책 이야기 흥미	203(28.4)	249(38.9)	452(33.4)	
	⑦ 할 일 없을 때	81(11.3)	37(5.8)	118(8.7)	
	⑧ 기타	40(5.6)	34(5.3)	74(5.5)	
계		715(100)	640(100)	1,355(100)	

N(%)

<표 25>는 독서 동기와 관련한 학생들의 성별 반응 양상을 보여준다. 남학생은 28.4%, 여학생은 38.9%로 “책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느낄 때”에 가장 높게 반응하였다. 다음으로 높게 반응한 경우는 “너무 아는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인데, 남학생은 15.9%, 여학생은 18.8%로 나타났다. 이 문항에 대한 성별 교차분석 결과는 Pearson의 카이제곱 값이 36.425이고 유의확률 p값이 .000이어서 유의수준  $\alpha=.05$ 보다 작다. 따라서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즉, 독서 동기에 대한 성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존재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책 내용에 대한 공감과 흥미가 독서 자극이 되는 경향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무지가 독서 자극이 되는 경향도 여학생에게서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 4. 독서 장애 요인

학생들에게 독서에 장애를 초래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서가 좋은 줄 알면서도 막상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질문에 대한 반응지는 ① 시간이 없어서, ② 조용

히 읽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③ 책이 없어서, ④ 책 읽는 게 지루하고 재미없어서, ⑤ TV나 인터넷이 더 좋아서, ⑥ 기타의 6가지로 하고 하나를 고르게 하였다. 질문의 의도가 학생 본인들의 독서 장애 요인을 직접 판단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이 질문 또한 학생에게만 하였다. 다음 <표 26>, <표 27>은 이와 관련한 응답 결과이다.

<표 26> 독서 장애 요인에 대한 학생의 학교급별 차이 교차분석 결과

질 문	반 응	학교급별		전 체	$\chi^2=24.119$ $df=7$ $p=.001$
		중학교	고등학교		
독서가 안 되는 이유는?	① 시간 부족	107(17.5)	182(24.5)	289(21.4)	
	② 장소 부족	44(7.2)	28(3.8)	72(5.3)	
	③ 책 부족	40(6.5)	39(5.3)	79(5.8)	
	④ 흥미 부족	198(32.3)	204(27.5)	402(29.7)	
	⑤ TV와 인터넷	175(28.5)	239(32.2)	414(30.6)	
	⑥ 기타	46(7.5)	50(6.7)	96(7.1)	
	결측	3(0.5)	0(0.0)	3(0.2)	
계		613(100)	742(100)	1,355(100)	

N(%)

<표 26>과 <표 27>을 같이 살펴보면, 독서가 막상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학생 전체적으로 “⑤ TV나 인터넷이 더 좋아서”에 가장 많이 답변하였고(30.6%),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어 “④ 책 읽는 게 지루하고 재미없어서”에 많이 답변하였으며(29.7%), 다음으로 “① 시간이 없어서”에 반응하였다(21.4%). 전반적으로 볼 때, 학생들에게 독서에 장애를 초래하는 큰 요인은 외적으로 TV와 인터넷 매체의 영향과 시간 부족을 들 수 있고, 내적으로는 본인의 끈기와 흥미 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책 부족이나 장소 부족을 이유로 반응한 경우는 매우 적게 나타났다. 이는 장서량이 확충되고 책에 대한 접근성이 양호해지는 등 근래 독서 환경이 개선된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26>은 독서 장애 요인을 판단하는 데 대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반응 차이를 보여준다. 중학생은 독서가 안 되는 이유로 “책 읽는 게 지루

하고 재미없어서”(32.3%), “TV와 인터넷이 더 좋아서”(28.5%), “시간이 없어서”(17.5%)의 순으로 답변하였고, 고등학생은 “TV와 인터넷이 더 좋아서”(32.2%), “책 읽는 게 지루하고 재미없어서”(27.5%), “시간이 없어서”(24.5%)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학교급에 따른 반응 차이를 교차 분석한 결과, Pearson의 카이제곱 값이 24.119이고 유의확률 p값이 .001이어서 유의수준  $\alpha=.05$ 보다 작다. 즉, 독서 장애 요인에 대한 중학생의 반응과 고등학생의 반응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 TV와 인터넷이 장애 요인으로 고려되는 경향은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본인의 지루함과 흥미 부족이 장애 요인이 되는 경향은 중학생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시간 부족의 경우는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의 경우에 더 큰 장애로 인식된다고 할 수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학업 시간이 증가가 독서 시간의 부족으로 이어진 결과일 수 있다.

<표 27> 독서 장애 요인에 대한 학생의 성별 차이 교차분석 결과

질 문	반 응	성 별		전 체	$\chi^2=31.163$ $df=7$ $p=.000$
		남	여		
독서가 안 되는 이유는?	① 시간 부족	113(15.8)	176(27.5)	289(21.3)	
	② 장소 부족	37(5.2)	35(5.5)	72(5.3)	
	③ 책 부족	43(6.0)	36(5.6)	79(5.8)	
	④ 흥미 부족	223(31.2)	179(28.0)	402(29.7)	
	⑤ TV와 인터넷	245(34.3)	169(26.4)	414(30.6)	
	⑥ 기타	53(7.4)	43(6.7)	96(7.1)	
	결측	1(0.1)	2(0.3)	3(0.2)	
계		715(100)	640(100)	1,355(100)	

N(%)

<표 27>은 독서 장애 요인에 대한 성별 반응 차이를 나타낸다. 남학생은 독서 장애 요인으로 “TV와 인터넷이 더 좋아서”(34.3%), “책 읽는 게 지루하고 재미없어서”(31.2%), “시간이 없어서”(15.8%)의 순으로 반응했다. 여학생은 “책 읽는 게 지루하고 재미없어서”(28.0%), “시간이 없어서”(27.5%), “TV와 인터넷이 더 좋아서”(26.4%)를 답변하였으나 그 차이가 미미하여

순위에 큰 의미가 없다. 이 문항에 대한 성별에 따른 반응 차이를 교차분석한 결과는 Pearson의 카이제곱 값이 31.163이고 유의확률 p값이 .000이어서 유의수준  $\alpha=.05$ 보다 작다. 즉, 독서 장애 요인에 대하여 남학생의 반응과 여학생의 반응 사이에 차이가 있다. TV와 인터넷을 장애 요인으로 고려되는 경향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에게서 더 크고, 시간 부족이 장애로 지적되는 경향은 여학생에게서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 V. 논의 및 결론

학교 현장에서 독서에 대한 인식이 어떤 양상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 보았다. 독서 개념과 관련하여서는 학생과 교사의 인식 차이가 주목되었으며, 독서의 중요성은 학생과 교사 모두 절대적으로 긍정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정도의 판단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독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학생과 교사가 같은 측면에서 접근하는 특징이 있었다.

첫째, 독서 개념에 대하여 학생과 교사 사이에 뚜렷이 대비되는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주로 독서를 정보나 지식을 얻는 과정으로 여기는 반면에 교사들은 생각을 만드는 과정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였다.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독서를 정보나 지식을 얻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우세하고 교양이나 여가의 측면에서 인식하는 경향은 낮았다. 이러한 점은 학생들이 독서를 실용적이고 효용적인 차원에서 수용하는 성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정보나 지식을 얻는 것은 비교적 그 효과가 실질적이고 소용되는 바도 구체적일 수 있는 반면에, 교양을 기르거나 여가를 즐기는 하나로 생각하는 쪽은 직접적인 실용성과 거리가 있음이다. 학교급별로 학생들이 지닌 독서 개념에 차이가 있었는데, 독서를 정보나 지식을 얻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이 강하였고, 자신의 생각을 만드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고등학생이 강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논술 시험이나 수학능력고사 등을 통해 자기 생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데 따른 결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학생들의 독서 개념에 대한 성별 차이도 있었는데, 독서를 자신의 생각을 만드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여학생들에게서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독서 개념에는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교과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독서가 자기 생각을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은 비국어과 교사들에 비해 국어과 교사들이 보다 강하게 하는 편이다. 그러나 비록 전체적인 비율은 낮지만 독서가 정보나 지식을 얻는 것이라는 생각은 비국어과 교사들이 더 강하게 하는 특징이 있었다. 이는 국어과 교사들이 국어과 읽기 영역의 지도와 관련하여 독서가 인간의 고등 사고 활동의 하나로서 인지적 의미 구성 행위라는 본질적 측면을 보다 잘 알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이상의 사실은 학교 독서 교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독서를 어떻게 인식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학생들이 독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독서 과정이나 결과에 어떤 영향이 초래되는지 규명해 볼 필요 또한 있음을 말해준다.

둘째, 독서의 중요성과 관련하여서는 중요한 정도를 판단하는 측면에서 학생과 교사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학생과 교사 모두 독서의 중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지만, 학생들은 주로 독서를 조금 중요한 정도로 판단한 반면에, 교사들은 압도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학생들의 경우, 독서의 중요성에 대하여 중학교 학생과 고등학교 학생 사이에 판단의 차이가 없었으며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도 차이가 없었다. 교사들의 경우에도 중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 사이에 차이가 없었으며, 국어과 교사와 비국어과 교사 사이에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교수 학습자별 반응에는 차이가 있었다. 독서의 중요성을 소극적으로 긍정하는 경향은 학생이 월등히 높고, 매우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경향은 교사가 현저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독서가 중요하다는 학생들의 인식이 피상적임을 말해 준다. 학생들의 경우 독서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내발적으로 형성된 것이 라기보다 사회 일반의 목소리나 가정의 부모나 학교의 선생님으로부터 계몽되고 가르쳐진 것일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독서의 유익함이 충분히 경험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혹시 현재 학교 교육이 여전히 교과서 외는 독서를 하지 않아도 학업 성취에 지장이 없고 학교 생활에도 아쉬움이 없는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여지가 있다.

셋째, 독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학생과 교사 모두 교훈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학생들의 경우 학교급으로 보면 중학생의 인식과 고등학생의 인식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성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인생의 교훈이나 지혜를 준다는 차원에서 독서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경향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게서 강하게 나타났고, 정보나 지식을 준다는 차원에서 필요성을 인식하는 경향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강했다.

교사들의 경우는 인생의 교훈적 측면에서 독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매우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교과별로는 차이가 없었지만, 학교급별로는 차이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교사에 비해 중학교 교사들에게서 더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생의 교훈이나 지혜를 주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독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경향은 국어과 교사와 비국어과 교사 간에 차이가 없다.

학생과 교사로 나누어 볼 때 세부적인 양상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학생과 교사 모두 전체적으로는 인생의 교훈이나 지혜를 주기 때문에 독서를 권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지만, 이러한 경향은 학생에 비해 교사가 훨씬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주목되는 점은 독서가 필요한 이유를 정보나 지식과 관련짓거나 학습에서의 유용함과 관련짓는 성향은 교사에 비해 학생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학교의 독서 실천 양상을 살피기 위해 몇 가지 대표적인 사항을 살펴 보았다. 학생들의 독서는 시기적으로 주로 평소의 일상 시간을 이용하는 특징이 있었고, 도서 선택과 관련하여서는 학생과 교사 사이에 상당한 관

점 차이가 드러났다. 독서 동기는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흥미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가장 많이 유발되는 특징이 있었으며, 독서 장애 요인으로는 외적 요인으로 TV와 인터넷 매체의 영향과 시간 부족이 지적되었고 내적 요인으로는 본인의 흥미 부족이 지적되었다.

첫째, 독서 시기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독서를 평소에 틈날 때마다 한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학생들의 독서가 전반적으로 불특정하게 임의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경향은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에게서 높았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경우가 더 높았다.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어 보이는 주말이나 공휴일, 방학 때 독서한다는 경우는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실은 독서가 일상적으로 습관화되어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독서가 시간을 할애하는 순위에서 후순위에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학생들이 독서에 별도의 시간을 투자하는 데 인색해 한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도서 선택을 둘러싸고 학생과 교사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연애소설이나 추리소설 등의 재미가 쉽게 느껴지는 책이나 베스트셀러류를 즐겨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종합하면 학생들의 경우 흥미 본위와 인기 위주로 책을 선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부와 관련되는 도서나 고전 및 명작의 경우에는 반응률이 낮게 나타나서 흥미가 쉽게 느껴지기 어려운 책을 기피하는 경향 또한 강함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도서 선택에는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연애소설이나 추리소설류의 일단 재미있는 책을 고르거나 베스트셀러류의 인기있는 책을 고르는 경향이 전체적으로 지배적이지만, 전자의 경우는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이 더 강하고, 후자의 경우는 고등학생이 더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차이도 있었다. 연애 소설이나 추리 소설 등 일단 재미가 쉽게 느껴지는 책을 고르는 성향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강하였지만, 재미가 쉽게 느껴지기 어려운 고전이나 명작을 고르는 성향은 반대로 남학생이 강한 편이었다.

교사들은 학교급이나 교과에 따른 반응 차이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불

때 교사들은 고전이나 명작을 추천하는 경향이 강하였고 베스트셀러를 추천하는 경향은 거의 없었다. 고전이나 명작은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오랜 세월을 거치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면서 그 의미가 검증된 도서이다. 교사들이 고전이나 명작을 가장 많이 추천하고 있다는 사실은 도서 추천시 교육적 가치와 의미를 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말한다. 그러나 소설류를 중심으로 하여 일단 재미있는 책을 추천한다는 반응도 높게 나타난 사실을 주목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장에서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흥미를 적극 고려하고자 하는 분위기도 공존함을 말해준다.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지 않으면 독서 자체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일 수 있음이다. 만일 학생들이 우선 읽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도서 추천에 학생들의 흥미를 현실적으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독서 동기는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책 내용을 파악하고 흥미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가장 많이 유발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 밖에 자신의 무지함이 자각될 때 독서 동기가 각성되는 경향도 있었다. 특기할 만한 것은 교과서만으로 공부가 부족할 때의 경우에 반응률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학습 목적으로는 독서 동기가 잘 유발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 원인이 흥미 요소가 적은 점과 관련될 수 있다. 이점은 다른 사람을 통해 책 내용을 듣고 흥미 요소를 예상할 수 있을 때 독서 동기가 높게 나타난 점과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할 일이 없을 때 독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데에도 반응이 낮았다. 이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져도 독서를 하고 싶은 마음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인데, 독서를 하지 않는 데는 시간과 같은 물리적 요인보다 심리적 요인이 더 관계됨을 시사한다.

독서 동기에 대해서 학교급이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였다. 다른 사람이 하는 책 이야기를 듣고 흥미가 있겠다는 판단이 생길 때 독서 동기가 생기는 성향은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강하였다. 자신의 무지에 대한 자각이 독서 동기를 유발하는 성향은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이 더 높았고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강하게 나타났다.

넷째, 전반적으로 볼 때, 학생들에게 독서에 장애를 초래하는 큰 요인은 외적으로 TV와 인터넷 매체의 영향과 시간 부족을 들 수 있고, 내적으로는 본인의 흥미 부족을 지적할 수 있었다.

독서 장애 요인에 대해서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존재했다. TV와 인터넷이 장애 요인으로 고려되는 경향은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본인의 지루함과 흥미 부족이 장애 요인으로 생각되는 경향은 중학생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시간 부족의 경우는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의 경우에 더 큰 장애로 인식된다고 할 수 있다. 성별 반응에도 차이가 있었다. TV와 인터넷이 장애 요인으로 고려되는 경향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에게서 더 강하며, 시간 부족이 장애로 지적되는 경향은 여학생에게서 훨씬 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의 측면에서 제한점을 지닌다. 본 연구의 설문 조사는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중등학교는 초등학교에 비해 학업 부담이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크다. 중등학교의 독서에 대한 인식이나 실천은 이런 여건의 산물일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설문 조사는 대상 학교가 부산 지역에 한정된다. 한때 부산교육 하면 독서교육을 떠올릴 정도로 부산 지역의 독서 교육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로 인하여 설문 응답에 모종의 영향이 개입되었을 수 있다.\*

---

\* 본 논문은 2008. 10. 31. 투고되었으며, 2008. 11. 6. 심사가 시작되어 2008. 11. 27.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교육부(1994), 중학교 국어과 교육 과정 해설, 대한교과서.
- 교육인적자원부(1999), 중학교 교육 과정 해설(Ⅱ)－국어, 도덕, 사회, 대한교과서.
- 교육과학기술부(2008), 중학교 교육 과정 해설(Ⅱ)－국어, 도덕, 사회, 대한교과서.
- 국어교육연구소(1999), 국어교육학사전, 대교.
- 천경록 · 이재승(1997), 읽기 교육의 이해, 우리교육.
- 한국어문교육연구소(2006), 독서교육사전, 교학사.
- Ajzen, I.(1989), Attitude structure and behavior. In A. R. Partkanis, S. J. Breckler, & A. G. Greenwald(Eds.), *Attitude structure and function*(pp.241~274), Hillsdale, NJ : Erlbaum.
- Wang, J. H., & Guthrie, J. T.(2004), Modeling the effects of intrinsic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amount of reading, and past reading achievement on text comprehension between U. S. and Chinese students, *Reading Research Quarterly*, 39(2), pp.162~186.

<초록>

학교 독서 문화의 진단과 이해

김명순

본 연구는 중등학교의 독서 문화를 진단하고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설문 조사를 사용하였다. 설문 조사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1,355명과 중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 3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독서에 대한 인식과 실천 양상을 살피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응답은 집단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독서 개념 : 학생들은 주로 독서를 정보나 지식을 얻는 과정으로 여기고 교사들은 자신의 생각을 만드는 과정으로 여긴다.
2. 독서의 중요성 : 학생들은 독서의 중요도를 소극적으로 긍정하는 수준이고, 교사들은 절대다수가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수준이다.
3. 독서의 필요성 : 학생과 교사 모두 인생에 교훈이나 지혜를 주기 때문에 독서가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4. 독서 시기 :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독서를 평소에 틈날 때 한다.
5. 도서 선택 : 학생들은 흥미와 인기 위주로 책을 선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고, 교사들은 고전이나 명작을 추천하는 경향이 강하다.
6. 독서 동기 : 다른 사람을 통해 책 내용을 파악하고 흥미를 예상할 수 있을 때 가장 높게 유발된다.
7. 독서 장애 요인 : 외적으로 TV 및 인터넷의 영향과 시간 부족이 지적되었고, 내적으로는 흥미 부족이 지적되었다.

【핵심어】 독서 인식, 독서 실천, 독서 문화, 독서 교육

<Abstract>

The Perception of Reading and the Characteristics  
on the Reading Activity in Korean Secondary School

Kim, Myoung-soon

This research intend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related to reading and the characteristics on the reading practices in Korean secondary schools through questionnaire. This research's subjects have 1,355 students in 12 secondary schools and 330 teachers in 15 secondary schools, their response is analyzed.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

1. The students shows a tendency to perceive the reading as the process of gaining the information and knowledge, but the teachers have a marked trend to regard the reading as the process of construct the meaning.
2. Students' rating the importance of reading is lower than teachers' rating,
3. It is common to students and teachers that reading has been regarded as a significance because it gives us lessons and wisdoms
4. Most students read mainly ordinary times more than special times such as weekend, holiday, and vacation.
5. Students have an inclination to read a sort of interesting stories and bestseller, but teachers have a tendency to recommend a kind of the greatest masterpieces and classics.
6. Students' reading motivation is well aroused when they heard about the content of a book.
7. Students are hindered in their reading due to TV and internet, want of time, and the lack of interest.

【Key words】 the perception of reading, the characteristics on the reading practices, reading culture, reading education

【토론문】

“학교 독서 문화의 진단과 이해”에 대한 토론문

김주환(도봉고등학교)

발표자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교 독서 문화의 실태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설문지를 나눠주고 회수하는 일이나 진지한 답변을 받아 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기관이 아니라 개인 연구자가 설문조사를 실시하려고 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은 그만큼 더 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있는 조사 결과를 이끌어낸 발표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 조사에서 의미있는 것은 같은 질문을 교사와 학생에게 동시에 제시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로 인해 독서와 독서 지도에 대해 학생과 교사의 인식 차이를 드러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독서의 중요성이나 독서 지도, 독서의 문제, 독서 지도 방향 등에 대해서 교사와 학생들 간에는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학생들을 이해하고 지도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토론자가 놀랍게 받아들였던 것은 학생이나 교사 모두가 독서 지도의 주체를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으로 꼽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국어 선생님이나 국어외 선생님을 합치면 그 숫자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긴 합니다만 이런 것을 고려하더라도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독서 지도를 책임지고 있는 교사 입장에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결국 학교 교육에서 독서 지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기대 조차도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발표 내용은 학교 현장의 독서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마지막 장의 정리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기대가 큼니다. 여기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읽으면서 아쉬웠던 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질문 항목간의 변별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독서의 필요성에 대한 항목에서 보면 ‘지식이나 정보를 주므로’와 ‘공부에 도움이 되므로’의 차이가 분명치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요소는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항목에 ‘교양에 도움이 되므로’가 있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 항목은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경우 이 두 요소의 합은 ‘교훈이나 지혜를 주므로’보다 월등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즉 학생들은 ‘공부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 정보’를 요구하지만 교사들은 ‘교훈이나 지혜’를 강조한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래 항목에서 제시한 ‘입시에 도움이 된다고 할 때’, ‘교과서로는 공부가 부족할 때’, ‘아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교양이나 상식이 많은 친구를 볼 때’ 등에 대한 변별성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질문이 매우 추상적인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독서 시기에 대한 질문을 보면 틈날 때 마다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만 이것은 발표자가 추리한대로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소극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으로는 정확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주로 읽은 책에서도 ‘일단 재미있는 책’이라는 항목은 앞에서 제시한 ‘베스트셀러’, ‘고전이나 명작’ 등의 항목에 비추어서도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다고 느끼는 책은 개인의 주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책을 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독서 문제 파악에서도 ‘많이 읽지

않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것은 다른 질문들과는 좀 층위가 다른 것으로 오히려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문제의 결과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조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연구자는 학교 독서 문화의 진단과 이해를 위해 독서 주체로서 교사와 학생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독서와 관련한 인지적 정의적 측면과 독서의 실천 세계에서 드러나는 행태적 측면’을 살피는 데 조사의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독서에 대한 인식

독서에 대한 개념,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 독서의 필요성과 의의, 독서 동기나 의지

학교 독서의 실천 양상

독서 시기, 도서 선정, 독서의 실천을 방해하는 요인

학교 현장의 독서 지도에 대한 인식

독서 지도가 무엇을 하는 것이며, 독서 지도로 무엇을 해 왔는지, 지도해야 할 학생들의 독서 문제가 무엇이라고 인식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지도가 잘 안 되었던 이유는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학교 현장의 독서 지도 방향에 대한 요구

독서 지도의 적절한 주체로 누구를 상정할 수 있는지, 유용한 독서 지도는 어떤 것일지

그런데 연구자는 독서에 대한 인식과 독서의 실천 양상과 함께 독서 지도에 관한 인식과 지도 방향에 대한 요구까지 설문조사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독서 지도에 관한 내용도 독서 문화를 형성하는 한 요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독서와 독서 지도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독서에 대한 인식이나 독서

의 실천 양상에 대한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좀더 구체적인 질문 — 예를 들어 독서 시간, 독서량, 교사의 독서 지도 경험 등에 대해서 — 을 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아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상의 몇 가지 지적은 대부분 연구자의 의도를 잘못 읽은 데서 오는 것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현장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현장의 실태를 파악해보려는 쉽지 않은 연구를 시도해주신 발표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